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0.10.~10.13.)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 캠페인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3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가 지난 25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힘
 - 이날 동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어정역 일대에서 협의체 역할을 알리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배부함
 - 곽근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캠페인이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알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함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준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착한 한가위... 이웃부터 살폈다

< 곳곳서 취약계층에 성금-선물... 명절 음식·선물 세트·백미 등 나눔 >



※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 26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표이사 김현철)은 성금 100만원을 처인구에 기탁, 처인구는 기탁받은 성금과 물품을 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

- 처인구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경선)와 남사읍 적십자 처인 봉사회(회장 서강애)는 같은 날 지역 저소득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소불고기, 송편, 전 등 추석맞이 명절 음식 나눔을 진행
-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이날 포곡읍 삼계리의 장애인복지시설 ‘요한의 집’을 방문해 휴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
- 기흥구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은순)는 동직원과 명절 음식인 소불고기, 잡채, 전, 송편 등을 조리해 지역 저소득층 32가구에 전달하고 덕담을 나눔
- 수지구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는 위원들의 성금으로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8가구에 신발 상품권 10만 원 지원
- 수지구 풍덕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원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20가구에 제철 과일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핌
- 지난 25일에는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세실어린이집(원장 이세란) 원생들이 ‘아나바다 시장놀이’ 수익금 69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처인구에 기부, 역삼구역 재개발사업 대행사인 주식회사 다우아이콘스(대표 이사 김호현)도 처인구에 라면 369박스를 기탁
- 같은 날 기흥구청에는 ‘기흥구청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모은 성금 총 82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
-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지역 차상위 독거노인 25 가구에 송편, 고기 등 16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전달
- 기흥구 동백1동에는 주민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인 뮤직코이노니아 예술공동체(대표 박찬일)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이달 초 열렸던 ‘2023 동화마을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마련한 성금 91만 원 기탁
- 기흥구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배)는 저소득 30가구에 과일과 스팸·참치 선물 세트를 지원
- 수지구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대순)도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과일상자와 두유를 전달
- 기흥구 구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수)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20명에게 송편, 불고기 등의 명절 음식과 과일, 생필품 선물 세트 지원
- 수지구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의동)는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해 명절 반찬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핌
- 지난 23일 영덕1동에는 수원영은교회 내 마을공동체 봉사동아리 영덕동마을 쟁이(대표 이사무엘 목사)가 지역 저소득층 70가구에 전해 달라며 총 25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전달, 세트에는 송편, 과일, 동그랑땡, 부침가루, 식용유, 소고기뭇국, 김 등 7종이 담김
- 이날 처인구 역북동의 대한적십자 역삼봉사회는 홀로어르신과 어려운 가정 40곳에 송편과 과일, 불고기 등 230만원 상당의 물품 전달
- 지난 22일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처인구에 기부

- 이날 수지구 죽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변희일)는 고추장 만들기 무료 특강에 주민자치위원과 수강생 등 25명이 참여해 만든 발효고추장을 취약 계층 35가구에 전달
- 지난 21일에는 마트킹 용인점(점장 김희봉)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50포를, 지난 18일에는 김량장동에서 커피전문점 ‘에그로커피’를 운영하는 송은희씨가 처인구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처인구에 기부
 -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등 나눔을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처인구청/기흥구청 사회복지팀, 남사읍/역북동/구갈동/동백3동/영덕1동/동백1동/구성동/신봉동/상현3동/죽전3동/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중앙동 중앙동/죽전2동 행정민원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부모 가정 자녀에 영양제 지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영양제 이용권을 지원했다고 5일 밝힘
 - 대상자들은 이달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권을 받아 지정된 약국에서 유산균,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제로 교환할 수 있음
 - 김부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한 성장기 아동들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양제를 지원하게 됐다”며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 영양제를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지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현2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행정복지센터와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5일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한마음 가족운동회 행사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힘
 -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를 요청
 - 동은 사각지대 가구에 맞춤형 복지급여,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 고상혁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비롯한 위기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유림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대상 신청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대상 신청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음
 -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음
 - (1차) 2014.05.14.~2015.05.13., (2차) 2020.3.24.~2021.3.23.
 -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
 -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힘
- *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교육부)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 응급상황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본격 시작(9.27~) >

< 경증 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로 >

< 응급실 이용 전,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먼저 활용 권고 >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9월 27일(수)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함

-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하여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

· 대형병원 응급실 일평균 방문 경증환자 수(2,459명)는 중증환자 수(648명)의 4배(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21년)

- 단계별로 캠페인은 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② 응급의료정보앱(E-Gen)을 알리는 광고('터치터치 이젠')와 ③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젠 E-gen 하세요')으로 확장되어 진행될 예정

-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첫 광고인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 편은 엘리베이터를 응급실로 가정하고 경증환자가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 진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7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옥외매체 등으로 공개

- 아울러, 해당 메시지 전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자제 실천 슬로건 공모(10.16.~27.) 등이 TV, 라디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채널로 진행되며, 중증·경증 구분 안내를 돕기 위한 '응급안급' 등 짧은 영상(9.27.~10.27.)도 소개될 예정, 또한 응급처치와 응급실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개발한 '응급의료 대표 캐릭터' 2종도 캠페인 기간(10.10.)에 공개

- 다음으로 '응급의료정보(E-Gen) 알리기' 단계에서는 '터치터치 이젠'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터치터치 이젠' 광고는 과거 큰 화제가 되었던 국제전화 002광고(1998)* 패러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이젠(E-Gen) 앱의 유용성을 보여줌, 전원주 배우가 당시 광고를 그대로 재현하여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정보를 유쾌하게 알림으로써 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며, 10월 11일(수) 보건복지부 유튜브(복파리 TV)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

- 또한 이젠(E-Gen)이 필요한 상황을 노래(뮤직비디오), 영화(유명 대사)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입소문(바이럴) 영상(10월 3주차), 응급 상황 시 이젠(E-Gen) 사용법을 안내하는 유튜버 협업 영상(10월 4주차) 등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앱 인지를 넘어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
-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사용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젠, E-Gen 하세요!' 이벤트)이 10월 23일(월)부터 11월 6일(월)까지 약 2주간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진행

붙임1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에게’편 공익광고 주요 장면



엘리베이터(응급실)에
사람들이 타는 장면



사람들로 붐비는
엘리베이터(응급실) 내부



사람(경증환자)들로 가득한
엘리베이터(응급실)를 보고
허탈한 의료진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경증
환자가 중증환자 대비 4배
(‘21년 통계)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 119응급의료상담, 응급
의료정보제공앱 안내

붙임2	응급의료정보 (E-Gen) 앱 주요 화면
내 주위 응급실 보기	내 주위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보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메뉴 보기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통해 안전사고 예방 >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 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

붙임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3.9월말 ~ 12월(필요 시 연장)
-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선정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 구성·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 ②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 ③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 ④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 ⑤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서비스 품목 >

구분		서비스 품목(18종)
안전 (12)	낙상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 * (시범지역)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유형	시·도(5개)	지역(15개)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제천
	경북	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16.5%(435건)로 2018년 대비 크게 증가 >

<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민원제기,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2,317건)로 분류
 - 다만, 특이할 만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 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 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
 - 학대건수 ('18년)889건→('19년)945건→('20년)1,008건→('21년)1,124건→('22년)1,186건
- *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
 - (피해자 성별·연령)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

- (주장애유형)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이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학대행위자 유형 및 학대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 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 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
- *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 이후 연차별 연구 영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
- *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 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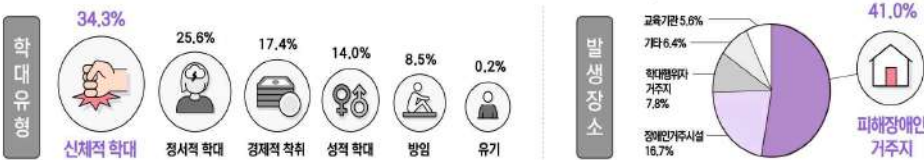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신고
총 4,95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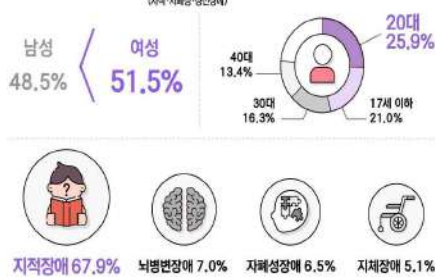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매년 증가 '21년 1,124건 ▶ '22년 1,18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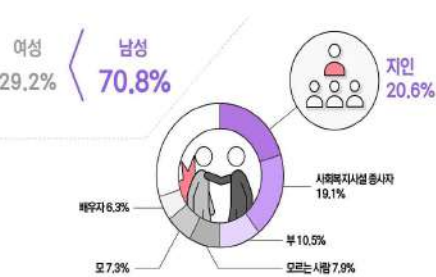
피해자 현황

정신적 장애인 77.3%
(지역·지배성·정신장애)



학대행위자 현황

가족 및 친인척 36.4%



신고자

본인 신고율 증가 '21년 13.2% ▶ '22년 16.4%

신고의무자 32.8% < 비신고의무자 67.2%



특성별 장애인학대 현황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 2개 사업단을 공모·개조하여 사업단마다 최대 2.5억 원 지원 >

< 규모 있는 노인 시장형 사업단 육성 및 노인 1인 가구 일상생활 지원 >

-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이번 지원사업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 선정된 사업단은 올해 안에 사업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
 -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밀반찬 등을 제조·판매 및 배달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③앞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추진하는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하며, '24년도 상반기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하반기에 추가 확대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